2002학년도

碩士學位 請求論文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Anthony A. Hoekema의 성화교리의 유용성과 한계성 고찰

(A Study on the Value and Criticism of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of Anthony A. Hoekema in the perspective of the Orthodox Reformed Theology)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硏究科

노 승 원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Anthony A. Hoekema의 성화교리의 유용성과 한계성 고찰

指導敎授 : 김성봉 교수

本 論文을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함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硏究科

노 승 원

노승원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노승원의 卒業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김 서 봉 印

審査委員 장 화 선 印

審査委員 한 태 기 印

審査委員 이 은 선 印

安 養 大 學 校 神 學 大 學 院

2002 년 12 월

감사의 글

참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며,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러한 신앙의 정신과 내용을 신학적으로 소개해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그 유익을 어떻게 전하며, 섬겨야 할지 몸소 보여주신 김성봉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동지로서 역할을 해주신 조직신학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논문의 정성을 쏟아주신 김지곤 전도사님과 늘 공부할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송희 전도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또한 늘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박영미, 황보난이, 이선경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부모님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이끌어 주시는 둘째 형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I. 서론---------- 1
A. 문제 제기 ---------- 1
B. 연구 방식 ---------- 2
II. 본론 ---------- 3
A. 하나님의 속성(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 I) ---------- 3
1. 속성의 성격 ---------- 3
2.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과 무한성(無限性: Infinity) ----- 5
a.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 ---------- 5
b. 무한성(無限性: Infinity) ---------- 7
B. 속성을 (에 근거한)반영한 삼위일체 구조
(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 II) ---------- 8
1. 삼위일체 이해 ---------- 8
2. 삼위일체 구조 ---------- 9
a. 실체(본질)에 따른 이해 ---------- 10
b. 상호 관계에 따른 이해 ---------- 10
c. 피조 세계에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 11
C.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의지와 작정
(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 III) ---------- 12
1. 하나님의 의논 ---------- 13
2. 하나님의 의지 ---------- 13
3. 하나님의 작정 ---------- 14
D. 성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 ---------- 17
1. 성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 17
2.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 ---------- 19
a. 섭리 안에서 성화의 이해 ---------- 19

b. 선택 안에서 본 성화 ---------- 22
c. 인간 안에서 본 성화 ---------- 23
d. 기독교 강요 구조 안에서 본 성화 ---------- 25
e. 율법의 제 3 사용 안에서 본 성화 ---------- 26
3.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나타난 성화의 이해 ---------- 27
E. 안토니, A 후크마의 성화에 대한 성경이해 ---------- 29
1. 후크마의 조직신학에서 나타난 '성화 ' 이해의 유용성 ----- 29
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방식 ---------- 30
b.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 ---------- 31
2. 후크마의 성화 교리에 대한 한계성 ---------- 32
a. 후크마의 성경해석의 한계 ---------- 33
b. 성화의 과정에서 섭리를 간과한 한계 ---------- 36
c.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바라본 후크마의 성화 이해의 한계 - 38
1) 성화의 주체에 대한 오해 ---------- 38
2)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시는 영'에 대한 오해 ---------- 39
d. 후크마의 자발적 순종과 책임의 문제 ---------- 40
III. 결론 ---------- 44
IV. 참고문헌 ---------- 47

I. 서론

A. 문제제기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인 성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인도하시지만,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 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강요나 기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그 주체의 한 부분을 인간으로 보고 성화를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역사를 통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신인협동(神人協同, coorper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1]이다. 또한 이런 관점은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성화를 인간중심으로 빠지게 하는 실수을 남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협동, 협력이라는 성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인간중심으로 머므르게 하며,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좋은 신앙이, 잘못된 성화의 이해로 오히려 그 신앙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4:15)'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운명이나, 숙명의 내용, 그리고 무율법주의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1) 이러한 경향은 경건주의와 감리교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성화를 고양시킴으로 자기 의에 빠질 위험을 만들었고, 또한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시켜 성화 전체를 첫 번째 은혜인 이신칭의 이후에 오게 되는 두 번째 은혜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을 나누게 하였다. Louis Berkhof, 권수경, 이상원역 『Systematic Theology』 p.782 재인용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공로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개혁주의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식대로, 높은 하나님의 성정 안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이러한 이해와 전제가 없는 성화는 인간의 위치만 높여 줄 뿐이다.
이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본인은 개혁주의에서 성화는 이러한 긴장 사이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행위에 결정되는 성화도 아니며, 또 하나님 하신다 할 때 기계적인, 강제적인 성화로 운명이나 숙명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성화가 채워지며, 또 이해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자였던 안토니 A. 후크마의 성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현금의 성화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보고, 또 전통적인 개혁주의 성화의 이해를 살핌으로 우리의 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B. 연구 방식

성화를 단순히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로 사려해서 단편적으로 떼어 이해할 때에는, 그 참 의미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면 인간이 사물을 이해할 때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함께 통합하여 사고할 때에야 바른 이해를 겨우 할 수 있는 제한된 인간이, 의지(Will)를 가지시고 영원의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단순히 한 순서 또는 한 과정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오해와 오류의 길이 너무 열려있다.
따라서 성화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이러한 창조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즉, '신론' 안에서 사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성화를 구원의 서정의 한 과정이라는 구분으로, 시간의 경륜(창조 이후) 안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인과론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2]가 있기 때문이다.

성화에 대한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본고는 연구방식은 I.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어떠하심(속성)을 먼저 살피고, II. 그 속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삼위일체 구조), 사역하시는지 확인한 후, III. 피조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의지와 작정을 통해서 피조세계에 그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VI. 칼빈의 성경에 나타난 성화의 이해와 개혁주의 내에서의 성화를 살핀 후 V. 20세기 신학자인 안토니 A. 후크마와 전통적 성화의 이해방식과 내용을 비교한 후 문제를 제시하고 VI. 결론적으로 본인의 성화에 대한 논지로 본고를 마치고자한다.

II. 본론

A. 하나님의 속성(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I)

1. 속성의 성격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바빙크와 개혁주의자들은 몇 가지 전제로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 전 우주와는 구별되는 강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

2) 또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창조이후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되는 이신론으로 빠질 수 있으며, 구속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뒷수습 정도의 일로 전락하고 만다.

간의 이성으로만 사유되고 유추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성경)"를 떠나서는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 해야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규정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른 속성에 의해 희생이 되거나 강조될 수 없다. 왜냐면 그 존재에 대한 속성은 그의 모든 온전성과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3)]

세 번째로 존재와 속성의 관계도 함께 이야기 하면서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가 가지신 것이다.(He is what he has).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 말할 때는 그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의 속성의 하나하나가 그의 존재와 동일함을 주장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속성을 갖지 않으신다. 단지 본질이실 뿐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참으로 그의 본질과 같다. 그것은 그의 본질과 다르지도 않고, 서로가 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4)]

따라서 본성이나 존재는 속성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며 구분된다고 생각해서는 않된다.[5)] 그러나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신다[6)].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이해력으로는 통일된 본성이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한 한 본질이기 때문에 속성의 구별[7)]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적응계시로,

---

3) Herman Bavinck, 이승구역, 『개혁주의 신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1998), p159-162.

4) Ibid., p173.

5) Heinrich Heppe, 이정석 역『개혁파 정통 교의학』,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97.

6). 자존성(시94:8, 사40:18, 행7:25), 불변성(출3:14, 시102:26-28, 사41:4, 말 3:6, 롬1:23, 히 1:11,12, 약1:17), 무한성(욥11:7-10, 시145:3, 마5:48), 지식(삼상2:3, 욥12:13, 시94:9, 147:4, 사29:15, 40:27, 28), 진실(출3434:6, 민23:29, 니 32:4, 시25:10)등

7) 구분(division)이나 분리(separatio)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distinctio)의 개념.

다양한 대상에게 나타내시면서 그 자체를 다양하게 계시 하시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은 불변하는 통일성과 신적 본성의 동일성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의 반영들도 보게 된다.[8]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은 한 마디로 그의 역사의 다양한 방식에 따른 하나님의 본질적 능력이다." 이라고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정의하고 있다.[9]

이상의 세 가지 간단한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다른 속성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으며, 또한 분리(division)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간으로써는 그 어떠하심이 구별(distinction)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것은 한 하나님의 본질적이 사역이라고 간단히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속성 가운데 두 가지 내용만을 살펴 볼 것인데, 많은 속성 가운데 단순성과 무한성을 한정하겠다. 왜냐면 그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10]이기 때문이다.

2.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과 무한성(無限性: Infinity)

a.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

---

8) Heppe. op, cit, p99-100.

9) 김영규, 『Thomas Cartwright(1535-)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 2002년 봄학기 강의안, 미간행 논문.

10) Ibid, p24. 단순성과 무한성은 그 자체로 (피조물들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본질적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속성 또한 이 두 가지 속성 안에서 그 독특성이 드러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지혜'라 할 때,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무한성(영원성)' 안에서 또 '변개함(단순성)'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그 풍성함과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성이라고 할 때에는 수적(數的)으로 하나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바빙크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표현으로 그 각각의 하나님의 속성들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피조물들에게 있는 존재, 삶, 앎, 의지 등의 구별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이다. 즉 그는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11]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완전하며, 온전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이러한 단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와 그의 성향의 변화하는 성격은 단순성과 결코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12], 또한 이런 내용은 단순성이 범신론으로 흐르거나, 삼위일체론을 파괴한다[13]는 오해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헤겔의 절대자, 순수 본질, 덕. 도덕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단순한 본질'(simplest essence)이라고 표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구별된 무한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가지신다는 것을 전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14]. 이러한 내용은 십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과도 함께[15]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삼위일체론에서도 단순성은 '이중적, 또는 삼중적'이란 말의 반의어가 아니라 '복합적이다'라는 말의 반의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과 대립되지 않는다.[16] 삼위일체에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서 단순성의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본성은 통일적(unitary) 개념을 가

11) Bavinck, op, cit, p247-248.

12) ibid. p249.

13) ibid. p252.

14) ibid. p252.

15)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4).

16) Bavinck, op, cit, p253.

지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들과 맺은 언약에 교리등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신다[17].

b. 무한성(無限性: Infinity)

무한성이라 할 때에 시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영원성이라고 부르고, 또 공간에 대한 불변성은 편재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무한성은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자체로는 분명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이는 한계 없음이란 의미로, 실제적 한계가 없다는 의미로 스피노자의 모든 한계와 정의를 초월한다는 부정의 의미나, 헤겔의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만, 모든 실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신적 수상을 수단으로 존재사실을 이해하는 무한의 개념은 아니다.' 라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다.[18] 또한 크기에서의 무한성도 아니며 (infinitude of magnitude), 또 수에 있어서의 무한성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한성은 '본질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이다"[19]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무한성은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적용되는 무한은 그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의 제한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속성에 비중을 둔 것은 단순성, 무한성은 속성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를 막는 것이며, 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피조물의 공유적 속성과도 차별성을 둔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17) ibid. p245-246.

18) Ibid. p224.

19) Ibid. p226.

없고, 제한적으로 사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속성의 전제를 통해서 다음장에 있을 삼위일체 구조에 대한, 한 분 하나님으로 또한 그 개념이 영원과 단순의 개념으로 이어지며, 각각의 위치를 갖고 계시는 근원적인 내용의 설명으로 이어지며, 피조물에 나타내시는 그의 사역과 존재도 역시 이러한 단순성과 영원성의 계시 내에서 사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 속성을 (에 근거한)반영한 삼위일체 구조(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 II)

1. 삼위일체 이해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에 불충분성과 부절적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 언어 자체 사용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지적[21]하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성경에는 그 용어가 없을지라도 성경의 사실과 가르치는 바에 대해 주체자와 계시자가 관련된 것이라면 그 말이 없어도, 없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위일체의 내용이 자연의 빛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문구로 정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한 신앙의 내용으로 흠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스테스(Alsted)는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과 조심성을 함께 하고 칼빈은 " 하나님의 말씀

---

20) 두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작정의 내용이 그 속성상 단순하고(통일됨), 영원한 내용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그 이해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21) 정지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나타난 성경해설론과 현 시대를 위한 실천적 의미』 안양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Heppe., op, cit, p. 16 재인용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으로 해석학적인 근본 원리를 삼아 삼위일체(trinitas)와 위격(persona)등의 용어들을 살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신학적인 자세는 우리들의 두뇌 안에서 혼동되고 성경에서 발견되는 어려운 문제들의 분명한 의미를 위해서 유용할 뿐 아니라, 진리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유용하다[22]고 밝히고 있다.

이제 삼위일체로 들어가서 그 용어와 개념 정리의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저스틴에서 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저스틴과 같은 방식으로 이레니우스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언급하면서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터툴리안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성하고 체계회시킨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라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 이후로 삼위일체 교리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며, 개혁주의 근간[23]을 이룬다. 따라서 본고의 삼위일체의 논술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De Trinitate*』'를 따른다.

2. 삼위일체 구조

삼위일체는 단순히 신비(mystery)의 내용으로 완전히 닫혀진 것이 아니고, 이해에 따른 구분이 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는 구조(systemic)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실체, 본체에 따라서(secundum substantiam, secundum essentiam), 상호 관계에 따라(secundum relativum)그리고 피조물과 관계에 따른 것(secundum ad creaturam)' 으로 이러한 구조 아래 삼위일체의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24]

---

22) Loc,. ibid

23)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p3.

24)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 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1999.

a. 실체(본질)에 따른 이해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substantia)과 세 위격(personae)으로 한 본질(본체)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굳게 지켜야 하는 확신은 가장 우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분 '그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은 모두 본체(또는 본질)에 대해서 하는 말이며, '어떤 것에 관해서' 하는 말은 그 본체가 아니라 관계(위격 personae)에 관해서 하는 말이다.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한 본질의 효력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는 말은 그 분들을 복수의 합계 아니라 단수로서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5]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26]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한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선이며, 전능하시며, 자신이 자신에게 통일성이며, 신성이며, 위대성이며, 영원성이며, 전능이시다.라고 할 수 있다[27]. 따라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속성과 신성은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자체와 분리할 수 없이 한 하나님으로 설명한다.[28]

b. 상호 관계에 따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본질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관계적으로'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29]해야 한다. 그와 관

25) Augustinus, 김종흡 역 『삼위일체론』, (서울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V, viii, 9 이후로는 'Trin'로 표기함

26) Loc., ibid.

27) Ibid,. V, xi, 12

28) Ibid,. I, 9.

29) Heppe, op, p112

련하여 성부로부터 성자의 발생(generatio)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발출(processio)도 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삼위 일체에 상호 위격들 안에서 상대적인 관계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 내용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시에 존재할지라도 결코 세 하나님(triplex)라고 이해해서는 않되며, 한 하나님으로써 동일 본질, 동일 영광의 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되, 그 자체 안에서 질서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30].

그러나 삼위일체가 그와 같은 식으로 삼위일체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성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4)'는 말씀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전체적으로 거룩한 영이라 부를 수는 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삼위일체를 거룩한 영, 즉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구별되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되는 성령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고유하게 칭해지는 것 안에서,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관계했을 때,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31] 바꾸어 말하면, 삼위일체 안에서 고유한 한 분을 말하는 것은 오직 그 한 자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관계나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실체(substantia)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relative)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c. 피조 세계에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피조 세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분리 할 수 없는 외적 사역의 동시적 통일 경륜이 언급된다. 그러므로 발생과 발출에서는 수동과 능동이 언급[32]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본질에 관해 수동적이

30) Trin,. VI, viii, 9

31) Ibid,. V. xi, 12

32) Ibid,. V. 6 발생과 발출로 시간성이 상정되지만, 그것은 본질과 관련되어 관계적인(relative)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발생과 발출에 시간성을 상정하는 것은 Arius이단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신 적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과 관계해서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주체이시다.[33] 그럼에도 인간에게 계시 될 때에 각 위격의 고유성으로 계시되어 성부의 음성,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마 3:16-17) 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주체자로 계신다. 따라서 한 주체자로써 외부를 향한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뉘어 사역하지 않으신다. (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34]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에 언급 할 때에 모두 하나님 본질(자체 substantia) 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 본질에 따라, 어떤 경우 관계에 따라, 어떤 피조물에 관계해서 말씀하신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구조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삼위일체의 이단[35]의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경륜적으로 구별(distinctio)되어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임에도 그 자체로는 통일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36]

C.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의지와 작정(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 III)

수동간에 우열(優劣)을 생각하게 되면, 종속이론으로 빠지게 된다.

33) Ibid,. V, viii, 9

34) Ibid,. I ,v.8

35) Louis Berkhof, 권수경, 이상원역 『Systematic Theology』,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p.280

36)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안양대 신학대학원 2000년 강의안, 김영규 교수는 이러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에는 '통일적 경륜'이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요 동일한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 둘째로 그렇게 그 실체 있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되, 성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없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 자체로 있고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한다. 세째로 그와같은 삼위일체는 동시에 역사되지만, 이들이 각각 위격들과 관계할 때,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각 고유하게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과 관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영원전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철학적 사고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엡 1:11, 시 33:11, 사 46:10-11, 행 2:23; 4:28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결의를 언급[37]한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나온 의논(결의 consilium)이라는 단어를 정의 할 때, 피조물처럼 불완전과 무지와 불확실성으로 서로 결의 하고 나누며,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을 의논하고 결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않된다. 하나님의 결의는 통치나 방편에 있어서 의논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 또 논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의 하지 않으며, 타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으신다. 왜냐면 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단순성을 그의 속성으로 가지신 분이며,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논은 하나(one)로 선후(先後)의 분리되지 않으며, 인간의 영악한 원칙들로 쉽사리 신의 결정을 적용해서는 않된다". 고 폴라누스의 설명[38]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가운데 작정하신 내용은 단순히 결의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논하신 내용을 실행하시는 의지(Will)를 갖으신다. 하나님의 의지도 의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행동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않된다. 설명하자면, 인간의 행동 영역에는 의지가 다음 일의 의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에는 목적과 방편, 원인과 결과 선행하는 계기와 후속적인 성취의 순서가 분명히 관찰되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의지도 다음 의

---

37) Hepp,. op, cit, p207

38) Loc,. cit

지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39].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관계의 내용으로, 첫 번째 의지가 다음 행동의 원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면 않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바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논과 연결하여 모든 만물에 하나님에 의논하신 내용을,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지는 영원하고 단순하며(통일성), 변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을 시간적 과정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40] 따라서 작정은 현실성이 있고, 만물에, 피조물에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 작정 자체는 단일하고, 단순하며, 선후도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의논과 의지가 하나이고 단일하기 때문에 작정도 마찬가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표상으로는 다양성과 수 없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즉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단일한 작정이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폴라누스는 "신의 작정은 예외 없이 모든 일과 질서의 유효적인 원리이다"[41]라고 정의 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주체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작정이 피조물에게 적용 되는 '모든 일'과 '질서'라고 할 때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만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적인 과정과 요소까지도 함께 작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39) Heppe,. op, cit, p. 210-212

40) Ibid,. p.214

41) Ibid,. p.219

"신의 작정(결정)은 그가 영원 전에 그의 완전한 자유 의지에 따라 불변하는 결의와 목적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외부에서 때가 되면 일어날 것들을 그들이 발생하고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원인, 과정, 환경, 방식과 함께 지정하고 결정한 신의 행위이다."

위와 같은 정의 후에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에 모든 환경과 요소를 작정하신다고 할 한다면, 악(Devil, 惡), 자유 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개혁파 내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살피도록 한다. 작정을 이해할 때 마스트리히트는 그 경향성에 있어서, 그것은 중심이 하나이지만 그 원중심에는 수없는 점들이 있는 원형에 비교할 수 있는 다양성과 자유가 있다[42]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양성과 자유가 어디서 산출되었는가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시점에 결정하는 내용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멀게는 이신론으로 빠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폴라누스는 "작정은 순전히 모든 선의 유효적 원인이며, 악의 유효적 원인으로 허용적인 원인이다.[43]"라고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작정의 내용은 유효적 원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상위의 개념이나 우월한 개념이 없음을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유효적인 원인으로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님은 악의 허용을 막지 않은 것은 결국 악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강제적 필연성(necessitate coactionis)이 아니라 가정적, 결과적 필연성으로서 (necessitate hypothetica, consequentiae)으로서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이 신정을 갖어하고 그러한 근거

---

42) Ibid, p 215

43) Ibid, p 219

위에서 명령된 결과로 일어나며, 따라서 신정은(신이 어떻게 하도록 결정한 것을 항상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인격적 피조물의 자유나 제 2원인(causa secunda)의 우발성을 폐기하지 않는다[44]. 설명하자면, 인격적 피조물의 자유나 인간이 알 수 있는 원인(cause)에 대해서 자율성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원인(제 2원인)의 우발성도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죄는 강제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짓는 것이 된다[45].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효적인 원인 안에서 그대로 두셨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일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 행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작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오해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일에 인간의 자발적인 것이 보이는 이중의 사역이기 때문이다.[46]

지금까지 성화의 이해를 돕는 전제(I, II, III)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분은 영원한, 단순(통일성)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것은 그의 의지의 반영으로 외부사역은 분리됨이 없이 동일하게 사역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의 이해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이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며 그가 뜻하신대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의 이해에는 반드시 이러한 신론적 전제가 따라야만 성화에 대한 진정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성화에 대해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은 어떠한 가 어거스틴, 칼빈, 이후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자.

---

44) Ibid, p 221

45) 이 강제성과 필연성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죄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46) 이런 제 2원인과 허용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화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D. 성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

1. 성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어거스틴은 왈렌티누스(Valentinus)와 그의 동료 수도사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옹호하며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 있다.[47] 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48]를 주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사람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이 없다면,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실행해서 약속된 상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 교훈까지도 아무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49]"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 자신이 하지 않고서는 그 상급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교훈하신 내용은 우리가 하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 판단하실 때에 이미 인간에 교훈을 주시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죄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음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 이런 때에는 인간이 핑계 할 수가 없으므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사람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계명이 많이 있고, (롬 12:21, 시 32:9, 잠 1:8, 잠 3:7, 잠 3:11, 27, 마 10:28, 약 4:11 요일, 2:25 등등) 또 하지 않도록

47) Augustinus, 김종흡 역, 『은혜론과 신앙론』,(서울 : 생명의 말씀사 , 1997) III, 1

48)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어거스틴 말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중생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

49) Ibid, III, 2

의지를 행사하라는 요구도 거기에 자유 의지를 충분히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지 못하며,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0] 그러나 덧붙여 어거스틴은 이 모든 말씀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전연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 성경은 그 은혜를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해한 성화를 살펴보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 19:11절을 주해하며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7:37절의 주해로, 장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그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만, '오직 타고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원하지 않는다고 안하는 것이 아님[51]을 설명하고 있다. 바꾸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선물,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결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전 15:57절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그 승리는 이 싸움에서 자유의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로 도우시는데 , 그 은혜는 다른 명령, 기도하라는 지시를 통해서 계속 돕는 것이라고 설명[52]하고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악인의 마음에 대한 것도 비밀한 심판을 통해서 이미 악한 성질로 기울어지게 하셨음을 예수님을 판 유다와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인 마귀까지도 가장 훌륭하게 이용하셔서 선한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하며 단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압살롬, 그가 그렇게 한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삼하 17:14) 이야기 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50) Ibid, III, 4

51) Ibid, III, 7,8

52) Ibid, III, 9

일은 사람의 의지가 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다.[53]"라고 구약의 내용들[54]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숨은 섭리로 하시며, 하나님의 이런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안에서 허락되는 가운데서만 되는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성화에서 우리의 몫으로 생각하는 모든 명령적 내용들도 인간이 주체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루고 있는다는 은혜의 성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

a. 섭리 안에서 성화의 이해

칼빈에 따르면 성경의 도처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네 가지 원인들[55]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요한 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 가지 원인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네 가지 원인을 언급하는 것은 롬 3장 23절과 26절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네 가지 원인들[56]을 가장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주석하고 있다. 직접 살펴보면 "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받게 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하므로

---

53) Ibid, III, 42

54) 대하 21:16-17, 대하 25:7-8, 왕하 14:10, 대하 25:20 등등

55) '동력인(動力因)-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주시는 사랑, 질료인(質料因)- 그리스도, 형상인(形相因)-믿음, 목적인(目的因)-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찬양을 하는 것' 으로 구원이 원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56) 죤 칼빈, 김종흡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 생명의 말씀사, 1997, III, xiiii, 17

써 구원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기타 다른 어떤 원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들에 설명함으로써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우리 밖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마치 믿음(형상인)과 그리스도의 의(질료인)가 우리의 구원을 절반씩 차지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연이어 설명하고 있다.[57] 풀어 설명하자면, 4가지 원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원인들을 생각할 때에 인간 편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다. 인간 편에서는 경륜 가운데, 앞서고, 뒤따를 것이 있지만, 이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올리시는 형태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58]. 또한 이것을 "앞서 있는 은혜는 뒤따르는 은혜의 원인으로 보고, 따라서 결과로써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행되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의 자비가 가장 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원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59]고 설명하고 있다.

즉, 칼빈과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작정' 부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공로를 누구에 돌려야 할지를 바르게 생각한다면,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신 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 자유의지[60]를 전혀 무시하는 기계론적인 사고를 가지 있지는 않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

57) Ibid,. III, xiii, 21

58) Ibid,. II, iii, 7

59) Ibid,. III, xv, 21

60)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의지'는 중생된 자들의 의지를 말하는 것임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61]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내용은 섭리와 작정에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설명되며, 예정의 필연성으로 제 2원인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여 강제성과 다른 것[62]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전능(全能)' 이라 할 때에 그 전능은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에게 명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개개의 특수한 운동을 향해 작용하는 권능[63]으로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이해에 반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간에게 운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운동력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 안에 뿌리박고 있는 본성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은 자신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64]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에피큐로스 학파[65]와 같은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즉 칼빈의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 행사는 이신론도 아니며, 그렇다고 숙명론적인 방식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6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그의 의지를 실행하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의 아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어떤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67]라고 언급하면서 제일원인과 제 2의 원인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다. 제일 원인는 세계와 인

---

61) Ibid,. III, xix, 4

62) Ibid, II, ii, 7.

63) Ibid,. I, xvi, 3.

64) Ibid,. I, xvi, 4.

65) Ibid,. I, xvi, 4. 하나님은 게을러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공중의 상반부만 지배하고, 그 하반부는 운명에 맞긴다고 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다.

66) Ibid,. I, xvi, 8.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나타나는 인과의 연속적인 관계와 일련의 연속에서 파생되는 필연으로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

67) Ibid,. I, xvi, 9.

류, 만물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져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68]. 제 2원인은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배하시고, 위탁하시고, 수단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대비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숙고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두가지 제 1원인과 제 2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이해는 제 2원인의 의해서 우리에게 현재 놓여진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면 주의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피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험을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독자들은 결론지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위험이 독자에게 운명적인 것이 아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명시하시는 것이다. 생명의 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69] 라고 잘 설명하면서 미래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대항하게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며, 또 그것들을 감추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염려에 사로 잡히지 않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마 6:3절에 "너는 구제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이다.

b. 선택 안에서 본 성화

---

68) 칼빈은 이러한 우발 사고 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안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5장 2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만물이)...같은 섭리에 따라 제 2원인을 좇아서 필연적으로나 자유 의지대로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이러한 이해는 개혁주의자들 우연, 우발에 관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Heinrich Heppe, 이정석 역『개혁파 정통교의학』, 12장 참조.

69) Ibid,. I, xvii, 4.

칼빈은 성화가 택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택자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됨으로 인간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설명[70]한다. 즉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선택 그 자체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최고선이신 하나님 자신의 뜻이 선택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71]. 이러한 선택의 조건으로 볼 때, 인간이 행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 만이 원인이 되고,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조도 이미 예정 곧 작정에 종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것은 그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차체로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를 본다면, 창조는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며, 창조이후 그 뜻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루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 이후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의지된 창조와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작정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베풀어주시는 부르심, 믿음, 칭의, 은택, 선행 등은 모두 선택의 증거요 표징이며, 열매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성화, 또한 성화의 표징인 선행도 인간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않되고, 모든 원인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72]

c. 인간 안에서 본 성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을 향해 지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은총을 통해서 인간에게 은

70) 각주 칼빈 예정 부분

71) II, iii, 8

72) 1559, 3,3, 31-35

ㅣ를 베푸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인성과 지성을 남기셨다.[73] 그러나 이 어느 정도' 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구원을 향한 것은 알 수 ㅣ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칼빈은 이야기 하고 있다. 덧붙여 하 나님께서는 일반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남기신 이유는 사람들 ㅡ 하여금 변명의 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이 증거(롬 :28), 칼빈이 설명[74]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다 주 ㅣ진 것이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다.

ㄴ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은총이 ㅣ어 특별한 조명(specialis illuminatio)을 받는다. 특별한 조명이란 성령 ㅣ서 내면적 교사로서 영혼에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한 말씀의 선포를 유 ㄴ케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신비 ㅏ고 특별한 능력으로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다[75].

ㄴ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성령께서 조명할 때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ㄴ로 조명하여 그것이 유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특 ㅣ한 조명[76]을 받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 ㅣ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ㄴ신 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내용을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여 "우 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앞질러 모든 일을 하셨 ㄴ"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로 부터 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77]. 같은 선상에서 칼 은 요한 복음 15: 5절[78]을 해석하면서, 인간 자체가 과실을 맺을 수

) Ibid,. II, ii, 12.

) Ibid,. II, ii, 22

) Ibid,. II, ii, 20

)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서 외부사역은 나뉘어서 사역하지 않으심을 살펴보았다. 같은 선에서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고, 특별한 조명시에도 성령 하나님 뿐 아니라 창조 시에도 성부와 성자도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단회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즉 창조가 다 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창조를 계속해서 보존, 유치, 통치하신다. 마찬가지로 조명후에도 그 조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단회적인 조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 Ibid,. II, ii, 26.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않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 아무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능력도 기대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79].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으며, 보상과 상을 받을 것은 인간 자체의 행위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공로에 대한 상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한 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80]

d. 기독교 강요 구조 안에서 본 성화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는 그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3권 11장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를 논한 후에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져 주시는 것임을 설명하며, 칭의의 의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교부들의 글과 카톨릭를 통하여 12, 13, 14장에서 칭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 되었는가를 증명하고 15장에서는 인간이 얻은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얻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의로 거져 얻게 되었다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할 때에 생기는 문제인 방관주의나 운명론, 또는 율법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오해 할 것에 대해 율법의 제 3 사용을 통해서 성도로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또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에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두 번째 언급에서 "자발적 순종"을 말했고고 , 그의 최종판(1559)에서 곳곳에 인간의 자발적 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자발적 의지는 율법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7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9) Ibid,. II,, iii, 9.

80) Ibid,. II, v, 2.

e. 율법의 제 3 사용 안에서 본 성화

칼빈의 율법의 제 3 사용의 의미는 성경을 전체 성경으로 이해하며, 그 계시의 주체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신·구약의 말씀을 분리해서 보는 자들이나, 또는 현대에 자유주의에서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결국 전체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하겠다. 바른 성경의 이해가 없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 흘러갔고, 따라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이제 칼빈의 율법의 제 3사용을 통해서 성화를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칼빈은 율법을 일반적인 인간에게도 적용시키는 도덕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단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규정된 참되고도 영원한 의의 법칙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이기 때문이다.[81]"라고 설명하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지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내용으로 받아야 한다.

칼빈이 성화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원인자이시며, 또 모든 일을 하신다 할 때,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내용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인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81) 신원균, 『칼빈의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년 석사학위논문. - p 11재인용

3.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나타난 성화의 이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단순히 성화를 13장에서만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고, 3장에서부터 고백되고 있는 사고 안에서 이해 되어한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사고가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는 언제나 신론안에서 이해되는 사고였다. 따라서 바빙크도 삼위일체가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이후 교회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관한 문제로 신론의 사고와 논의가 수그러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고백과 같은 사고는 계속 이어져, 모든 성경의 내용과 실천적 의미도 신론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자 먼저 3장 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 1절 :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태초부터 그의 뜻에 따르는 가장 지혜 있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불가변적으로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도 아니요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니 의지를 강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제 2원들의 자유와 우연성을 결코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보되고 확립되는 것이다. 제 2절 :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조건들하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모든 것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어날 모든 것을 미래로 예견하셨거나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에 어떤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 [82]

또한 제 6항에서도

82) A. A 하지,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p86.

"... 영광에 이르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미리 제정하셨다..."

라고 밝히고 있다.

제 13장 3절 에서도

" 부패가 우세할지도 모르나 성화를 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아...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온전하게 거룩하여진다." [83]

라고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앞서 칼빈의 성화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제 75문 "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데...택하신 사람들이 때가 차서 성령의 힘있는 역사를 통해서...전 인격을 새롭게 하고... 저희 심령 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증가 강화하시며...죄에서는 더 죽게 하시고 새롭게 된 생명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 77문 "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이 은혜를 부어 주시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같지도 않고..." [84]

라고 고백하고 있다.

---

83) Ibid,. p254.

84) 제임스 밴자민 그린, 김남식 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성광문화사, 1997, p 113.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에서는

제35문 " 거룩하게 하심은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로 인해...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85)

위에서 전통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살펴보았는데, 주목할 것은 동사가 모두 수동86)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성화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몫과 우리의 행동으로 성화를 이해 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씀이나 전통적인 성화의 이해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 이시고, 그가 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 내용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이지 않고, 특별히 인간은 스스로의 것을 확립하고,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순과 같은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제부터 논의 될 후크마의 성화론과 같이 이해하게 된다.
먼저 후크마의 성경해석 방식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통해서 결국 본인이 논의 하고자 했던 성화에 있어서 과연 신인협동적인가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 안토니, A 후크마의 성화에 대한 성경이해

1. 후크마의 조직신학에서 나타난 '성화 ' 이해의 유용성

---

85) Loc,. Ibid.

86) Joel R. Beeke, Sinclair B. Ferguson editors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Published by Baker Books. 1999. p104 참조.

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방식

조직신학에 대해 많은 부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사변으로 고려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을 자신들의 철학이나 이해로 가두는 학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오해는 이 시대 뿐 만 아니라 이미 18세기 때 부터 깊어진 오해의 모습이다.87)

이러한 오해와 반목(反目)속에서 후크마는 그의 조직신학에 관한 세 권의 책88)을 기술하면서 거의 모든 근거의 시작과 논지에 대한 증명을 성경의 주해 작업에서 논지를 찾아나갔다. 또한 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해 과정과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특별히 본고의 주된 내용이었던 『*Saved by Grace*』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방식이 사변적이거나, 막연한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또한 각 해석에 필요한 용례를 거의 모두 열거하여 논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정리89)하면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용례를 성경의 번역본들을 열거하며 설명하고 있다. 벌게이트, 독일어, 프랑스어, 천주교, 헬라어 사전들의 비교를 통해서 회개가 단순히 악한 행동의 돌아섬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 측면에서 '새로운 방행(方行)에로의 돌아섬'임을 설명하고, 또 신학자들의 주해내용도 함께 설명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구조 변경'으로 풀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생한 사람이 온전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반영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의식적인 돌아섬'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구원론과 기타 다른 저서의 저술 방식도 이와 유사하

87) 황창기,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88) 『The Future』, 『God's Image』, 『Saved by Grace』. 로 국내에는 『개혁주의 종말론』,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구원론』으로 번역되어 있다.

89) Anthony A . Hoekema,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203-218 이하 'Saved'으로 표기함

게 단어 연구, 성경의 용례, 정의(定意)순으로 정리하면서 그 제시를 언제나 성경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돋보이고 있다.

또 하나 후크마는 위와 같은 성경적 해석으로 오순절 계통이나, 신오순절 계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은사(Charismata)에 대한 오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단순히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신오순절파들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것으로 '은사(Charismata)'를 한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후크마는 그 성경의 어원적 근거를 통해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모든 은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성령은 곧 능력'이라고 규정짓고 병고침과 같은 기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적들은 이제 현재의 교회 가운데서 기대해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2:3-4절의 주해를 통해서 잘 설명[90]하고 있다.

b.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

위와 같은 주해 작업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안목은 인간의 이해에 대한 바른 시각을 열어 주고 있다. 현재 선교 단체로 가장 큰 부류 중에 하나인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의 "평신도 피교육자를 위한 교재 (Lay Trainee's Manual)를 지적하면서, 그 교재안에는 고린도 전서 2:14-3:3절 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91] 자연인(Nantural man)과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Carnal man)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그들의 삶은 돌이킴 이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르침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2] 왜냐면 세속

90) Ibid,. p55-57

91) Ibid,. p36 - "평신도 피교육자를 위한 교재" p 156 재인용

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중간적인 형태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의도의 내용(고전 3:1, 히 6:1)은 신앙의 성숙도 가운데 수준이 있으며, 그 가운데 계속 해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주해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넘어 해롭기까지 한다고 잘 지적하고 있다.[93]

C.C.C의 이러한 인간관은 성경에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94]로써, 또한 이러한 이해는 세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로 제 2단계(세속적인 그리스도)는 제 3단계 갈 때 제 2단계의 필요성이 강조 될 수 있다. 그런 이해는 돌이킴 이후에도 제 2단계를 거쳐야 하는 순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Lord)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다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성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간관을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지적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성경적인 지적과 함께 생각해야할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 했을 때에 생기는 오해를 조심해야 한다. 후크마는 이런 점에서 완전주의로 빠져 죄에 대해서 무감각 해지거나, 웨슬리파처럼 완전의 개념을 희미하게 하거나[95], 루터주의와 같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잘 피력하고 있다. [96]

2. 후크마의 성화 교리에 대한 한계성

---

92) Ibid,. p,37

93) Ibid,. p,38

94) 두 형태의 인간, 즉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요 3: 3,5),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요 3:36) 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롬 8:5) '신령한 자'와 '신령하지 못한 자'로만 표현하고 있음

95) Ibid,. p,353-367

96) "의인인 우리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a. 후크마의 성경해석의 한계

후크마는 개혁주의 독특성을 다섯가지로 요약[97]하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 역시 구원의 과정 즉, 그들의 믿음의 훈련과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들의 견인에 있어서 그들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98]를 하면서 성화의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일이요, 동시에 100% 인간의 일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후크마의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이라는 개혁주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이런 귀한 정신이 후크마의 성화에 대한 이해에 오해의 길을 열어 논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후크마는 전체성경의 내용을 다 고백하는 차원에서 '조화'(harmony)로 두 가지 내용의 성경구절을 다 해석하려 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99]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크마의 이러한 내용은 전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의 조화를 꿰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 성경이라는 정신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1장 2.부터 '상관관계들'이라는 내용으로 구원론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과 밀접하게 관계[100]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구절들로만 열거하고 있다.

97) Ibid,. p,12 ①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비록 인간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함은 분명하나,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②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속 속에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 의 뜻대로 영생을 주시고 택하신다. ③모든 자들에게 초청되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부여된다. ④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효하며 또한 유기될 수 없는 것이다. ⑤구원의 적용은 비록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포함하긴 하지만 이 구원의 적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이다.

98) Ibid,. p.13

99) Edward A. Dowey, James Packer, Vernon Grounds, G.K.Chesterton

100) Hoekema, op, cit p.18-12

후크마의 의견대로 '개혁주의'라 할 때, 전체 성경이라는 이해로 성경을 본다면, 성화에 관한 성경구절을 살필 때에는 그 해당 구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야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성화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성경의 성화와 관련이 없는 처럼 보이는 구절, 또는 어떤 경우 성화와 보이지 않게 상관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구절들까지 함께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
간단한 예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살핀은 성화의 내용과 함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왜냐면 성화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지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으면, 결국 보편 구원의 이해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보편 구원은 결국 인간의 자력 구원의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에서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전체성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룬다"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크마가 생각하는 성화에서의 오직 성경과 전체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성화의 해석은, 성화와 관련된 성경 구절 외에도 다른 구절 의미와 함께 연구되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후크마의 두 대비(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책임)는 단순한 조화(harmony)차원[101]에서 머므르며, 진정한 성화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구원론이 다른 모든 내용(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후크마의 의견대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의 해석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지를 폈을 때 제기 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경구절이 함께 해석될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

101) 단순한 조화 차원에 머문다는 것은 이미 칼빈이 지적한대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은 신(神)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방자하게 호언하기 까지한다."(II, ii, 3)라고 한 것처럼 자짓 이신론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판명성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절의 도움, 또는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구절은 한 구절 자체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이 모순 됨이 없이 전체가 함께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판명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절과 함께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의 방식과 이해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방식이다.102)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표현되었는지 칼빈의 성화에 대한 성경구절의 주석을 통해서 엿보기로 하자.

빌립보서 2:14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있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그와 함께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

> 우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 조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예비해 주실 때에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103)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 말씀 자체로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 말씀이 해석

---

102) 이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자신이 증거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않되는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내적 사역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의 원리를 덧붙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전에도 이미 어거스틴은 원전자체(ad fontes)로 부터라는 근본원리로 고백하고 있었으며, 칼빈 이전의 위클리프(J.Wicliff)부터 루터(M.Luther), 부쩌(M.Bucer), 불링거(H.Bullinger), 파라켈수스(Th. Paracelsus), 네티스하미의 아그리파(Agrippa von Nettesheim), 등등이 이미 성경의 자기해석의 표현을 위와같이 고백하고 있었다. . - 김영규, 『신학정론』 오직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 재인용

103) 죤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원,2001), 19권, p508.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지니게 되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로마서 3장 안에서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 성화의 과정에서 섭리를 간과한 한계

후크마는 바울의 로마서 6장과 8: 13절을 주해하며, 성화의 문제를 죄의 해결로 풀고 있다. 또한 그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즉각적으로는 죄와의 관계에서 끊어졌지만,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해서 죄와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과 노력의 활동은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진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죄와의 대립에서 승리 했을 때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 하지 못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원하시는 허용적 작정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후크마의 성경주해의 약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옛 본성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승리 하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가 질문하고 싶다. 후크마는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전 10:13)고 하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가 실패하거나 좌절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화에 실패한 성도가 되는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후크마도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한계의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러한 투쟁과 싸움의 결론을 그는 "이 목적은 이 생 가운데서는 도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빌립보서

3:13-14절로 그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성경 해석으로만 성화를 이해하게 되면, 인과 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하나님의 의지'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에 인간의 죄성과 죄의 결과 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크마와 같은 성화의 이해는 성도의 성화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에게 실패는 없는 것이다. 인간 편에서 본다면 실패한 인간 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삶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포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칼빈의 욥기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는 제 일원인과 이차적인 원인을 갖는다[104]고 한다. 즉, 욥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신이 가진 영원한 작정 속에서 사단에게 허락[105]하셨지만, 사단은 자신의 목적대로 욥에게 일하였다. 즉,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도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뜻과 사단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06] 따라서 성화 과정에서 죄와 악과 투쟁하는 과정의 면에서만

---

104) 1559, I, xvi, 9, xvii, 6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 일원인은 감추어진 원인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며, 제 2원인은 인간이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원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사고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내용으로 구별한 것이라고할 수 있다. - 신 29:29

105) 이러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에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 된다. (왕상 22:20, 22; 렘 1:15, 7:14, 50:25)

106)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4)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이러한 내요에 대해 김영규 교수는 '3중행위'로 설명하는데, 3중 행위란, '성경의 여러 증거들과 특별히 욥기서의 근거에 의해서 인간도 친히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행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다른 목적에서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사탄을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악의 원인자로 돌림이 없이도 같은 일의 동인자로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목적에 있어서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종이 인내를 연습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사탄은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자 노력하였고 갈대아인들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얻고자 노력하였다는 기능구조이다.'[1] 바꾸어 말하면, 욥의 고난이라는 동일한 사건

성화를 다룬다면, 앞서 이야기 한데, 인과론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결정되는 성화로 갇히게 된다.
성도의 구원의 서정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한 싸움의 성공과 실패 모두들 다 함께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시는 모든 삶이 성화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107]이며, 위안일 것이다.

c.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바라본 후크마의 성화 이해의 한계

1) 성화의 주체에 대한 오해

후크마는 그의 구원론을 풀어가는 가운데 그 방향 설정의 처음에 후크마는 "이 구원의 적용은 비록 믿음으로 얻어지기는 하나 성령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108]라고 논지를 시작하면서 개혁주의 구원론의 시작한다. 그리고 제 3장 '성령의 역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13절과 로마서 15:16절을 통해서 성화를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시는 영이라고 부른다고 논증하고 있지만, 이것은 후크마의 오해라고 생각한다.
어거스틴에 따라 바빙크도 외부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지만, 성경은 존재의 고유한 방식이 있고 사역의 고유한

에 도적떼도 재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욥을 시험코자 했던 사단도 목적을 이루고, 이 모든 목적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도 이룬다는 것이다.

107) 칼빈은 이러한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섭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I, xvii, 11 참조

108) Ibid,. p,12

ㅣ서[109]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경륜적 의미에서 성화의 사역은 성령
ㅣ게 맡겨져 있고 이미 구별되어 있지만, 그 성화의 사역은 성자와 성부
ㅣ 의해서 수행된 구속과 창조의 사역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ㅏ위일체 고백에서 안에서 이해 되어져야 한다[110]고 하였다. 그럼에도 삼
ㅣ일체 하나님은 이미 신적 본질에 있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ㅡ질이며, 또한 그가 현존한 그대로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도 그는 함께
ㅣ하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
ㅣ기 때문에 두 위격도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온 결
ㅏ인 자연과 은혜도 구별되는 형태 일지라도, 서로 배제되지 않는 형태로
ㅣ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그 외적
ㅏ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는
ㅗ백안에서 이미 이해된 것이다. 한미디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그분
ㅡ 구별된 역사에 있어서 함께 서로 일한다는 것이다.[111]

2)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시는 영'에 대한 오해

후크마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시는 영'이라
ㅡ 구절을 통해서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논증하고 있지만, 웨스트민
ㅡ터 고백서에 나타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시는 영'에 대한 해
ㅣ은 단순히 13장에서 해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2 장 하나님과
ㅏ위일체에서 그 성결케 하는 영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주목
ㅣ야 한다. 13장에 앞서 제 2장에서도,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
ㅣ 한 분만이 계신다..."[112] 그리고 "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서 있어서

)9) 본 논고의 II. 2.2 참조

(0) 헤르만 바빙크, 김영규 역 『개혁주의 교의학I』 (서울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 Ibid, 574-5

(2) A. A하지 Ibid, II. 1 64

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성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 하나님이시다..."[113]라는 내용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위일체 구조를 통해서 살펴 본대로 "인간에게 계시 될 때에 각 위격의 유성으로 계시되어 성부의 음성,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마 :16-17) 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주체자로 계신 ."라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거룩케 하신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 에 대한, 본질 자체 (substantia)를 위한 설명이 아니고, 상오 위격 안 서의 관계 내에서 설명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크 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각 고유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은 단순히 립적 위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주체로 이해해야 다.

이런 점에서 후크마는 성화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론에 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후크마의 이러한 견해는 결국 창조 성부, 구속 자, 적용 성령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흐르게 한다. 그가 비록 삼위일 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함께 사역한다는 고백[114]이 있음에 불구하고, 체에 관한 구절과 상호 위격안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구절의 분이 없는 성화의 이해는 결국 주체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지 할 수 있다.

d. 후크마의 자발적 순종과 책임의 문제

이제 후크마의 성화교리에 대한 본론적인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 적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성경해석의 문제점과 위일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 때문에 책임성을 강조하는 후크마

---

3) Ibid, II, 3

4) Hoekema, op. cit p.329

ㅣ 성화 교리는 문제가 되고,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이 될 수 있ㅏ.

ㅣ제 성경에 나타난 '자발적 순종' 즉 후크마가 이야기 하고 있는 인간의 ㅐ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본고에ㅓ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해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이ㅗ 순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다.

ㅎ크마는 그의 구원론을 통해서 '인간의 책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ㅔ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하면, 인간의 완고함과 죄성 때문에 오히려 ㅎ명이나 율법 폐기론자 같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우려했고, 또 실제로 ㅎ경에서도 우리의 의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므로 책임이 간과되지 않는ㅏ.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단ㅎ히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의지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로 이해 할 수 있다. ㅗ러나 성화라고 할 때에는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을 ㅎ과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생각한다면 그리 단순한 문제ㅡ 아니다. 또한 책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고, 인과론적으로, ㅣ간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흐르기 쉽다.

ㅣ간의 자발적 순종과 책임에 관한 문제의 이미 12세기 Peter umbarutus가 어거스틴의 주장을 변형하여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ㅏ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을 ㅎ종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데서 있다고 주장[115]하였고, 중세에ㅡ 역사하는 은총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구분하였고, 또한 돌ㅌ총회 때에는 Sybrandus Lubbertus가 하나님의 은혜를 '첫 은혜'와 '두ㅣ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나누어서 보면서, 은혜의 인간의 협ㅓ을 허용하는 것에 주장[116]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웨슬리주의에서도 볼ㅡ 있는 것으로, 칭의와 중생을 나누면서 칭의를 첫 번째 은혜로 중생을ㅡ 번째 은혜로 나누어서 보는 견해[117]와 같이 하고 있다. [118]

---

(15) 김영규, 『루터의 신인협동설에 입장』, 안양대 신학대학원 Th,m 강의 안, p. 5

(16)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p274-275

그럼에도 분리가 아닌 구별로써 그 은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119].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은혜를 구별없이 생각해도 않된다. 왜냐면 신분과 처해있는 조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와도 결정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120]

바빙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별을 칼빈에게 있어서도 있다.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서니 이유니 목적이니 필연성이니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121]하면서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롬바루두스, 루베루두스, 웨슬리와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 칼빈과 바빙크가 구별하는 것은 인간편에서 적응 계시 될 때에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종속으로 따라오는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 자체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 자신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발적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바빙크도 계속해서 성화에 있어서 자발적

---

17) 각주 1)참조

18)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보는 것은 가장 크게 루터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김영규 교수는 밝히고 있는데, 그 협력에 대해, 그(루터)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손의 사역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행하길 바라는 것으로 원인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후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것으로 원인자체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하신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하길 원하시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는 사고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념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협력하는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 것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루터의 입장이 하나님의 자유를 전제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협동사역의 개념이기 때문에...루터의 주장은 이미 스콜라주의에서 주장되었던 두 개념의 발전과 결코 다른 발전이 아님을 암시한고 한다.

19)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에 대한 구분에 대한 것 설명 - 바빙크껄로

20) 헤르만 바빙크, 김영규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1984), p497.

21) 1559, I. xvi, 9

순종을 지적하고 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자 자들도 더불어 일하는 사역이 되도록 의도 되었다."[122] 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언급된대로 이것은 "...신자들이 독립적이고 새로이 발생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각자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논의 작정 안에서 준비 되었다."[123]라고 함께 언급한다. 또한 " 새로운 기질들을 주입시고 그가 결코 의도 했던 것이 아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그런식으로 의지를 형성한다."[124]라고 설명한다. 결국 성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칼빈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보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I, xvi, 9절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경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뼈를 좋은 실례로 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셨던만큼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요 19,33,36) [125]

를 설명하면서 상대적 필연과 절대적 필연, 즉 결과적 필연, 결과의 필연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간단하게 결과의 필연은 필연이 결과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 필연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뼈를 부러질 수 있게 만드셨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를 부러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연으로 발생할 수 있

---

122) Ibid,. p,500 .

123) Ibid,. p 502.

124) Ibid,. p,529 .

125) 기독교 강요, I, xvi, 9

던 것을 자기 계획의 필연으로 제한하셨던 것이다. 성화도 마찬가지이. 결과가 필연에 종속되어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이 작정하셔서 그의 의지와 원대로 인간의 의지 지배하신다는 것이다.

라서 성화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책임 부분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작정운데 제 1원인으로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한 최종적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상의 이유와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적 필연은 히려 하나님을 통치자로 우주의 창조자로 생각하고 더욱 겸손하고 두려 하는 공경을 낳게 하는 유익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감추어진 것으로의 지혜의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이끄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우리는 근본 원인(하나님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맞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치에 두신 제 2원인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되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위로와 성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발적 순종일 것이다.

이러한 성화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수평적으로 이해 할 때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이해에는 반드시 주체자가 계시고, 분의 뜻과 의지는 모든 피조물과 피조계를 넘어서 계신다는 겸손의 마으로 입체적(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으로, 수직적(모든 것이 하나님 수단이라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이 하는 성화의 바른 이해일 것이다.

.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 오늘날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성격이나 선포의 내용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즉 지금 이 시간에 인간이 결정하는 내용이 마치 구원의 방식인 것처럼, 구원의 성취와 서정의 근원적 뿌리로 잘못 이해하며 그 참 의미를 파괴하고 있다. 구원의 열매인 성화의 방식도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의 신적인 방식이 파괴되고 있고, 같은 연장선에서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웨슬레적이고 아르미니우스적인 이해이며,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참 신앙의 내용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동일한 또는 어느 부분 자리를 차지 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화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이해에는 현대 여러 철학적 경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과학에 있어서도 실험이 이론에 앞서고, 사회비판철학에 있어서도 실천이 이론에 앞서며,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현대의 사고는 우리의 신앙을 오류에 빠지게 하였다. 즉 구원에 방식과 열매를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사라지고 인간만 남게 하였다.

따라서 좀 더 실천적 의미에서 성화의 내용을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즉 신앙의 내용과 열매를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정까지 올라가서 생각했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은 이미 변함이 없는 형태로 의지(Will) 되었고, 그것은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외부사역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않으며, 그럼에도 그 존재의 고유한 방식이 있고, 고유한 질서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또한 경륜적 의미에서의 성화의 사역은 성령에게 맡겨졌고 이미 구별된 것으로, 그러나 그 역시 성자와 성부에 의해서 수행된 보속과 창조의 사역과 재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내용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ㅣ런 전제의 내용으로 성화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ㅣ간 자체나 그 모든 활동이나 주변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ㅊ신 은혜의 성격이며, 최고의 은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 ㅣ 우리를 위하신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生)을 이해 ㅏ 때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나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도 하나님 자신 만이 ㅗ화로 가장 귀한 형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택 ㅏ받은 백성의 태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받은 은혜 ㅏ과 열매)를 근원자에게 돌리는 형태가 경건이요 예배이며 찬양이며 성 ㅏ일 것이다. 또한 무엇인가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무 것도 ㅏ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으로 밖에 갈 곳이 없는 생활의 태도가 진정한 ㅣ화의 모습이 아닐가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A. 1차 자료

1. 영역본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Hoekema, Anthony Andrew. *Saved by Grace,* 1986

2. 국역본

후크마, 안토니 A.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_____.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B. 2차 자료

1. 단행본

그린, 제임스 밴자민. 김남식 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7.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_____. 『기독교 강요강독I』,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안, 2000.

_____.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2.

_____. 『조직신학편람I』,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0.

_____.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 신학대학원 Th. M. 강의안, 2001.

바빙크, 헤르만.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CLC, 1999.

_____. 김영규 역 『개혁주의 교의학 I』,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_____. 이승구 역 『개혁주의 신론』, 서울: CLC, 1999.

벌콥, 루이스. 신수경·이상원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어거스틴. 김종흡 역,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짱키우스, 제롬. 김성봉 역, 『절대 예정론』, 서울: 나눔과 섬김, 2000.

하지, A. A. 김종흡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헤페, 하인리히. 이정석 역 『개혁파 정통교의학 I』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칼빈, 존. 김종흡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칼빈, 존. 『성경주석』(19권), 서울: 성서원, 2001.

2. 논 문

김영규. 『Thomas Cartwright(1535-)』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봄학기 강의안, 2002.

_____. 『칼빈의 성화에 대해서』, 개성연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0.

신원균.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현승. 『개혁주의 성화론에 있어서 신인협동사역에 대한 문제』, 안양대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1.

정동곤.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안양대 신학대학원 Th. M. 논문, 1997.

정지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나타난 성경해석론과 현 시대를 위한 실천적 의미』, 안양대 신학대학원 Th. M. 논문, 2001.

정해용.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그 실천적 의미』, 안양대 신학대학원 M. Div. 논문, 2001.

조성재. 『어거스틴 삼위일체 구조가 갖는 신학적 객관성에 관하여』, 안양대 신학대학원 Th. M. 논문, 2000.